

“옥수수 5만t 北 지원 제의”

김하중 통일장관

정부는 지난 달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직후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제안했으며 현재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북측에 지난해 합의된 옥수수 5만t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약 3주전 관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채널을 통해 옥수수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지원을 위한 접촉을 타진했지만 북

작년 정상회담서 결정

북측 아직 답신 없어

측에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라고, 당분간은 북한으로부터의 입장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옥수수 지원을 요청받은 뒤 그해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지만 국제곡물가 상승, 중국의 식량수출 쿼터제 적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늦춰졌다.

김 장관은 “작년 지원을 결정할 당시 옥수수 가격은 t당 350달러였지만 현재는 420달러 정도에 달해 당초 측정한 금액으로는 5만t을 다 줄 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한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앞으로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연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가 놀란 미국의 변화

노예해방 이후 최대 격변

흑·백 구분없는 열광적 지지

미국이 달라졌다. 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얼마전까지도 ‘글쎄...’였다.

하지만 3일(현지시각) 흑인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올 가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해답은 “예스(Yes)”로 바뀌었다. 몇 시간씩 줄을 서 흑인 정치지도자를 기다리던 군중이 ‘변화’를 외치는 연설에 눈물의 갈채로 화답하는 드라마 같은 모습이 거의 날마다 연출됐다. 미국이, 미국 정치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와 전망에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다.

지구상에 미국이란 나라를 등장시킨 독립전쟁과 노예해방에 이어 흑인 대통령 탄생이란 3번째의 혁명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백인들이 지배해온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통치권을 거머쥔 유력한 후보로 예송이 같은 40대 흑인 정치인이 부상했다는 사실 자체가 혁명적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미국인들은 변화를 바라고, 미국과 미국 정치는 바뀔 수 있다는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이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다. 다른 정치인들이 9.11과 이라크 사태,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를 역설하고 있을 때 오바마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

“어쩌면 오바마는 미국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한 전문가의 지적처럼 미국인들은 다시 동칠 수 있고, 미국은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오바마의 비전 제시에 미국인들은 공감하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흑인 케네디’로 불리고,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비유되며, 단숨에 열광적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 확실하는 변화 열풍=오바마의 희망과 변화 주장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흑인이 아니라 백인 지식층이었다.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같은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일찌감치 오바마의 등장을 대서특필하며 적극적 지지를 보냈고, 백인 지식인 계급은 대부분 힐러리보다는 오바마 편에 섰다. 백인 인구가 압도적인 아이오와에서 오바마가 첫 승을 거두면서 이같은 지지층은 더욱 견고해졌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흑인들의 지지율은 어느 때부터가 80% 위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미대선 첫 흑인 후보

역사 다시 쓴 오바마는 누구

대변화 이끈 ‘검은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3일(현지시각)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의 엑셀 에너지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사우스 다코타주와 몬태나주의 예비선거를 끝으로 막을 내린 5개월 간의 경선 레이스에서 승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티켓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케냐 출신 부친에 40대 혼혈

미국 대선 사상 최대의 돌풍이자 이변을 낳아서 미국 정치권과 사회의 지각변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버락 오바마(46·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3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선거지역인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주 프라이머리를 마무리하면서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매직넘버)를 확보했다.

그는 1961년 8월4일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캔자스 주(州)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바마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그가 두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한 이후 어린 시절 가운데 4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다. 그러다가 하와이에 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집에서 중등학교를 다녔지만 청소년시절에는 인종문제로 정체성 갈등을 심하게 겪으며 마약을 접하기도 했다.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내적인 갈등과 방황은 그러나 그를 미 대선 후보 자리에까지 다가갈 수 있게 만든 답답한 토양이 됐다. 오바마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서 누구 못지 않은 사람과 교육을 받아 희망을 키웠다는 메시지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는 혼혈이라는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인 인도네시아에서 유년기를 지냈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동서양의 접점으로 불리는 하와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 후 시카고 빈민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을 벌이다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정치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하버드 대학원을 진학, 법학박사를 받고 변호사가 됐다.

1996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인 발을 디디게 됐고 2004년 여름 보스턴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연설에 나서 “미국인은 모두 하나”라는 내용의 기초연설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그해 11월 그는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현재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이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해 대선 유세 지원을 위해 시카고 대학병원 대의원 업무 담당 부원직장을 그만 둔 부인 미셸(44)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각)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 측이 쇄고기 협상과 관련해 30개월 이상 쇄고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자동차 등에 대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 FTA

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의회 내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성장, 고용, 무역 등 경제적 문제들이 선거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공화당의 8년 집권을 끝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FTA를 쟁점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힐러리 “러닝 메이트, 부통령 후보 맡을 용의”

미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패배가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각) 경선 승자인 버락 오바마 의원의 러닝 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맡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CNN과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힐러리는 이날 뉴욕주 출신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니디아 벨라즈케즈 하원의원의 질문에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찰스 랑겔 하원의원도 CNN에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를 맡을 용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믿음만한 한 소식통은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주간 부통령 후보 티켓을 따내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힐러리의 한 측근 보좌관은 “힐러리는 3일 저녁 연설에서 자신의 지상 목표는 민주당의 11월 대선 승리이며, 이를 위해 요청받은 어떤 일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한편, 힐러리는 오바마 의원의 승리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오늘밤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겠다”며 거취 표명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전남남도청 앞도심프라자

오피스빌·상가임대/분양

www.1577-0733.com

1577-0733

www.ahredwin.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각반 40명)

“2008년 11월 15일 시행되는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하여 교육생 모집합니다.”

교육과정	차적응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차적응 2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신규 모집반	09:00~18:00(월~금)	신규 모집반	18:30~22:30(월~금)
신규 모집반	09:00~13:00(월~금)	차적응 1반	18:00~22:30
신규 모집반	14:00~18:00(월~금)	차적응 2반	14:00~18:00
신규 모집반	18:30~22:30(월~금)	차적응 1반	14:00~18:00

※교육비 이후 시험비용이 1급 국가자격증 교육비
고용보험 가입료로서 국비 지원 80%~100% 지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소지자 배제 (지원한도내 10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문의처 062)364-1152-3
062)368-2070